高麗時代 龍華手印 彌勒圖像의 硏究

孫 永 文*

Ⅰ. 머리말
Ⅱ. 高麗時代 彌勒像의 造成背景
Ⅲ. 용화수인 미륵도상의 전개
Ⅳ. 용화의 상징적 의미
Ⅴ. 고려시대 용화수인 미륵상의 형식
Ⅳ. 고려시대 용화수인 미륵상의 도상특징 및 해석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미륵은 석가모니불을 잇는 未來佛이자 當來佛로서, 불상의 출현 이래 끊임없이 造像되고 열렬히 신앙되어 온 불교의 대표적인 존상 중 하나이다. 미륵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신앙의 구조는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으로 구별되지만, 결국 미륵신앙은 용화삼회의 설법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는 하생신앙으로 종결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인 신앙 구조로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인하여 미륵은 보살형으로도, 또는 여래형으로도 造形되기도 하며,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도상이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고려시대는 조상활동의 중심이 경주를 벗어나 개경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轉機가 마련된 시기이며, 前代에 비해 신앙의 계층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고려 전반기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불상과 더불어 괴량적이고 힘이 넘치는 대형 미륵상들이 충청과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들 대형의 불상들은 비록 여래형으로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머리에는 寶冠을 쓰고, 꽃을 잡은 手印을 취하고 있다. 보살상 역시 보관을 쓰고 天衣 대신 如來의 佛衣를 착용하고 손에는 꽃을 들고 있는 도상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고려시대 불상들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특히 꽃을 지물로 취한 상들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의를 입고 손에는 꽃을 잡고 있는 불상과 보살상의 존명이 미륵일 가능성과, 이 상들의 지물로 등장하고 있는 꽃이 미륵의 龍華會上을 압축적으로 상징화한 龍華임을 다각적인 도상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II. 高麗時代 彌勒像의 造成背景

신라 말 고려 초, 후삼국 쟁탈기의 두 맹주인 弓裔와 甄萱이 스스로 말세를 구제할 미륵불이라 지칭할 만큼 미륵신앙은 크게 주목받았다. 신라 말 혼란기에 경기지방 일원에서 세력을 형성하며 일어난 태봉의 왕 궁예는 머리에 金幘을 쓰고 몸에 가사를 입었으며, 맏아들을 靑光菩薩, 둘째아들을 神光菩薩이라 하였다. 외출할 적에는 반드시 백마를 타고 채색비단으로 말갈기와 꼬리를 장식했으며 童男童女를 시켜 깃발, 양산, 향화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게 하고, 비구 2백여 명을 시켜 梵唄를 부르며 뒤를 따르게 하였다고 한다.[1] 그가 외출할 때의 모습은 마치 미륵불이 용화수 아래에서 三會의 설법을 행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翅頭末城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특히 그가 큰아들을 관음보살의 상징으로 靑光菩薩로 이름짓고, 둘째아들을 아미타불에 비견해서 身光菩薩로 이름한 것은 신라 태현계 법상종의 신앙형태에 연결되고 있다.[2]

신라하대 화엄종이나 선종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법상종은 법상종 승려 釋冲이 미

---

[1] 『三國史記』 卷第50, 列傳10, 弓裔條.

[2] 金杜珍, 「性相融會思想 成立의 思想的 背景」, 『均如華嚴思想硏究』(한국연구원, 1981), pp.117-118.

륵으로부터 전수받은 眞表의 彌勒戒簡을 왕건에게 전달하면서 주목받게 된다. 진표의 계간은 미륵불에게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승하는 자는 곧 혼란한 후삼국기를 통일하고 미륵불국토의 초석을 마련하는 전륜성왕 내지 미래불로 인식되었다.

고려시대는 전국적으로 법상종 사원들이 전대의 법등을 계승하고 있거나 새롭게 창건되었다. 고려 초 충청도 지방에는 삼국통일을 기념하여 건립한 開泰寺와 법상종 사찰로 추정되는 灌燭寺 · 大鳥寺를 건립하고 그곳에 大佛을 조성하였다. 이곳에 사찰과 대형의 미륵불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백제의 미륵신앙을 계승하여 백제계 유민을 포용하고 나아가 반란과 부침이 심했던 이 지역에 대형 미륵상을 조성하여 고려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는 한편, 전륜성왕이 치세하는 화평한 시대가 열렸음을 기념하는 상징물로써 미륵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관촉사와 대조사에는 전륜성왕의 이미지와 미륵의 용화회상을 상징하는 용화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전륜성왕의 이미지가 투영된 용화수인 미륵대불의 유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미륵을 主尊으로 하는 법상종은 顯宗代(1009-1031)에 玄化寺가 창건되면서 화엄종과 더불어 고려 2대 종파로서 급부상하게 된다.[3] 사찰이 건립된 후 현종은 몸소 발원하여 彌勒菩薩會와 彌陀佛會를 매년 개설할 만큼 법상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륵의 용화정토와 아미타의 극락정토가 결합된 신앙형태는 삼국시대부터 등장하지만, 통일신라 법상종 사찰의 중요한 예배대상이었다. 당시 고려 법상종의 총본산 현화사의 미륵보살회에 어떤 모습의 미륵보살상이 봉안되었을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관촉사 미륵보살상이 왕실(광종)에서 직접 파견한 승려 慧明에 의해서 조성된 전례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관촉사 미륵보살상과 도상적으로 유사한 미륵상이 제작되어 법회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현화사는 법상종의 최고승들이 머문 고려 법상종의 총본산이므로 현화사의 신앙형태와 존상의 봉안 법식은 모든 법상종 사찰의 기준과 규범이 되었을 것이다.

미륵에 대한 신앙과 조상활동은 왕실의 법상종 사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법상종 승려 스스로에게서도 잘 드러난다. 승 혜명은 光宗(950-975)의 명으로 관촉사에 대형의 용

---

[3] 玄化寺는 顯宗이 지난날 穆宗의 모후인 천추태후의 탄압과 음모로부터 그를 구해준 법상종 승려들에게 보답하고, 더불어 不義의 씨를 낳았다는 죄명으로 불운하게 세상을 마친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국력을 기울여 국가적으로 건립한 대사원이다. 金南允, 「新羅法相宗研究」(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p.147; 崔柄憲,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高麗中 · 後期佛教史論』(民族社, 1986), pp.101-111; 文明大, 「高麗 法相宗美術의 展開와 玄化寺 七層石塔 佛教彫刻의 研究」, 『講座美術史』 17(韓國美術史研究所, 2001. 12), pp.10-15.

화수인 미륵보살상을 조성하였고, 현화사 4대 주지를 역임한 智光國師 海麟은 "梵題로서 戒定을 연마하고 慈氏를 본아 그 신분으로 행동하려 했다"고 한다.[4] 그의 제자 慧德王師 韶賢 또한 그의 비문에 "항상 상생을 간절히 원하여 멀리 無着의 자취를 따르고 가까이는 窺基의 자치를 흠모하고, 미륵존상을 그려 완성시켜 매년 7월 14일에 法筵을 열었으며, 미륵여래의 명호를 念하면서 戒를 넓게 펴려 했다"고 한다.[5] 법상종을 대표하는 두 고승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법상종 승려들은 미륵신앙은 물론 미륵상 조성에도 심혈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예배대상으로 삼은 미륵존상 역시 당시 유행한 전륜성왕의 이미지와 용화회상의 이미지가 결합된 용화수인의 미륵상임에 틀림없다. 법상종 승려들의 미륵신앙은 고려 후기 津億, 彌授(1240-1327), 弘眞國師 慧永(1228-1290), 慈淨國師 海圓(1262-1340)으로 이어지고 있으며,[6] 조선 세종 때 불교계가 선교양종 2대 종파로 통폐합되기 전까지 4대 종파로서 법맥을 유지해 나갔다.

미륵을 주존으로 모시는 법상종 이외에도 미륵에게 석가의 의발을 전수하는 가섭으로 곧잘 비유되었던 선종 승려들에서도 미륵신앙과 조상 예를 찾을 수 있다. 미륵이 석가의 법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선종에서도 미륵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었다. 교종이 석가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선종은 바로 석존의 마음이며, 가섭에서 비롯되었다. 가섭은 석가의 遺法을 받들어 계족산에 入定하여 미륵이 출현할 때 석존의 衣鉢을 미륵에게 전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제자이다.[7] 선종은 가섭과 달마 등 고승들의 행적이나 전기를 중요시하는 종파이다. 고려시대 선사들 역시 현재 전하는 丹城 丹俗寺 信行禪師碑文,[8] 康津 無爲寺 先覺大師 遍光塔碑文,[9] 廣照寺 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文 등을 통해서 볼 때 미륵이 하생하기 전 말법시대에 성불하지 않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수행, 정진하고 있는 가섭과 같은 존재로 비유

---

4 "…播威名於賢劫 研戒定於梵題 效慈氏之身分…" 李智冠, 「法泉寺智光國寺玄妙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2(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5), p.349.

5 李智冠, 「法泉寺智光國寺玄妙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5), pp.20-69.

6 津億은 11세에 현화사에서 출가하여 혜덕왕사에게 수업했으며 26세에 대선에 뛰어난 성적으로 뽑힌 법상종 승려이다. 그는 최초로 고려 후기 새로운 불교운동의 하나였던 지리산에서 水精社를 결사하였다. 蔡尙植, 「高麗後記 天台宗의 白蓮寺 結社」, 『高麗後期佛教展開史研究』(民族社, 1992), p.227.

7 「조당집」 I, 『한글대장경』(동국역경원, 1986), p.47.

8 "…記에 계족산 석실은 마하가섭이 법의를 지키며 자씨를 기다리는 곳이라 했으니 어찌 여기가 아니겠는가. 세세로 바위라 일컫기만 하던 것을 여기에서 보니 이루어진 그때부터 그 모양이 (계족산) 문과 같으나 문이 열릴 시기는 언제쯤인지 알 수 없다. 이 같은 성스러운 자취는 그 수가 매우 많아서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記云鷄足石室 摩訶迦葉 守法衣待慈氏 忌非是欽 世世稱巖 今見在玆 成從自爾 其狀如門 門闢之期 未知幾許 如是聖跡 其數孔多 難可詳悉耳…)."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伽山文庫, 1994), pp.54-72.

되었다. 당시 선사들은 스스로를 가섭과 같은 존재로 석가모니불과 미륵불의 연결하는 매개자이자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개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섭의 衣鉢傳授 이야기는 돈황의 미륵하생경변상도나 고려시대 미륵하생경변상도 등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표현되고 있다.

한편 선종의 대표적인 문파인 사굴산문의 단속사에서는 1222년 8월 1일에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龍華會가 개설되었고, 또 같은 산문인 전주의 臨川寺에서도 貞祐 12년(1223) 8월 13일에 3회째 용화회가 개설되었다.[10] 정기적으로 개설된 이 용화회에서는 아마도 의식에 필요한 대형의 미륵불화가 제작되어 법석에 懸掛되었을 것이며, 그림에 표현된 미륵상은 용화수인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조선 후기 괘불탱 중 龍華手印의 가장 이른 예인 1627년작 부여 무량사 미륵괘불탱과 1673년작 청양 장곡사 미륵괘불탱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다.[11] 즉 이들 용화수인 미륵괘불탱은 고려시대의 오랜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대표적인 법상종과 선종의 미륵신앙 이외에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천태종,[12]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는 팔관회, 미륵정토신앙과 아미타정토 신앙이 혼합된 朴淵天上祭, 매향을 묻고 내세에 미륵을 만나기를 기원하는 매향의식 등이 고려 초기부터 조선 초에 걸쳐 행해졌다.

결론적으로 미륵신앙은 당시 종파를 초월해서 폭넓게 수용된 신앙이었으며, 위로는 귀족 · 승려층에서 아래로는 향촌 단위에서 결성한 향도집단, 그리고 민간의 일반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폭넓게 수용되고 신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신앙의 결정체인 미륵상 조성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으며, 그 결과 고려시대 전역에 다양한 형태의 미륵상이 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

9 李智冠, 「康津 無爲寺 先覺大師 遍光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pp.310-333 참조.

10 鄭智喜, 「淸州 龍華寺 石佛像群의 硏究－思惱寺址 石佛像群과의 관련성－」(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pp.30-31.

11 부여 무량사 미륵괘불탱의 화기에 "…天啓七年丁卯六月日畵成也鳴山縣誌北嶺萬壽山無量寺彌勒掛佛幀一會留傳也…"라고 있고, 장곡사 괘불은 본존불의 방기란에 "彌勒尊佛"이라고 명시하였다.

12 『법화경』은 모두 28품으로 설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從地湧出品」, 「如來壽量品」, 「見寶塔品」에서 과거－현재－미래를 대표하는 多寶－釋迦－彌勒을 설정해 두어 여래의 법이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授記品」에서는 모든 만물이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하고 그 대표적인 보살로 미륵보살을 설정해 두고 있다.

III. 용화수인 미륵도상의 전개

인도 초기 미륵상은 바라문 수행자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행자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梵天(Brahmā)도상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데서 기인한다. 바라문적 이미지와 결합된 초기의 미륵도상의 특징은 머리에 터번이나 보관을 쓰지 않고 束髮이나 髻形으로 묶어 올렸으며 손에는 수행자의 상징인 물병(水甁)을 들고 있다.[13] 이러한 미륵도상의 특징은 굽타시대까지 그 전통이 지속되었고, 이후 대승보살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면서 보관불탑과 용화수인이 미륵보살의 도상적 특징이 되고 있다.

인도의 용화수인 도상은 후기 굽타시기에 등장하여, 팔라시기에 정형화된다. 오랑가바드(Aurangabad)석굴 제6굴 주실 문 좌우에는 보관에 스투파가 표현된 미륵보살과 화불이 표현된 관음보살상이 수문장처럼 시립하고 있으나 지물은 無持物이다.[14] 굽타기에 조영된 엘로라 석굴 11 · 12굴의 팔대보살상 중에 미륵보살은 柳狀의 잎을 가진 용화를 쥐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4瓣의 둥근 작은 꽃을 부착한 枝狀의 용화, 그리고 유상의 잎과 4판의 둥근 작은 꽃을 부착한 용화가 표현되었다. 또 11굴의 제2층 당내에는 용화를 가진 미륵의 보관에 寶塔을 표현한 예도 확인된다.[15] 파트나 박물관 소장 미륵보살상도1, 1-1, 1-2은 팔라기의 미륵보살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 상은 머리의 복발형의 탑과 함께 소형의 꽃들이 다발을 이루는 龍華가 미륵도상의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관음보살상도2, 2-1, 2-2의 단판정면향의 연화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으로, 팔라기에는 미륵도상이 완전히 정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 팔라기에 유행한 버들잎 모양을 가진 다발형 긴 가지의 용화는 진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평양 영명사 불감 내 미륵보살유희좌상, 대구 동화사 염불암 마애보살유희좌상, 진천 용화사 석불입상 등에 표현된 잎을 가진 다발형의 용화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이는 고려시대 등장하는 용화가 인도 팔라기에 정형화된 용화수인 미륵 도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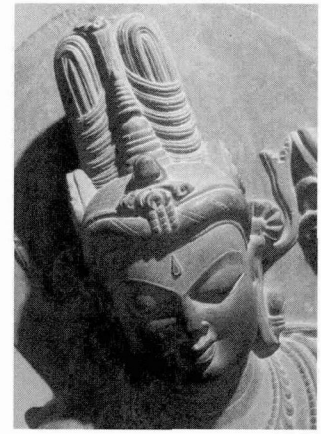
---

13 인도 초기의 미륵도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글이 참조가 된다. 宮治昭, 「印度の尊像の二系列と彌勒菩薩の圖像」, 『涅槃と彌勒の圖像學』(吉川弘文館, 1992); Lee Yu-min, "The Maiteya Cult and Its Art in Early China"(Ph.d. diss.,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3); 上原 和, 「ガンダーラの彌勒菩薩像をめぐる題問題」, 『佛教藝術』 160(毎日新聞社, 1985); 宮治昭, 「ガンダラの三尊形式の兩脇侍菩薩の圖像」, 『涅槃と彌勒の圖像學』; 姜旼廷, 「키질석굴의 〈兜率天彌勒說法圖〉 연구」(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14 Carmel Berkson, *The Caves at Aurangabad*(Ahmedabad: Mapin publication, 1986), pp.178-179.

15 朴亨國, 『ヴァイロチャナ佛の圖像學的研究』(法藏館, 2001), p.104 참조.

도 1 석조미륵보살좌상, 10세기, 인도 파트나박물관 (Vishupur 출토)



도 1-1 머리부분

도 1-2 용화부분

도 2 석조관음보살좌상, 10세기, 인도 파트나박물관 (Vishupur 출토)

도 2-1 머리부분

도 2-2 연화부분

영향을 직 ·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초기의 미륵도상 역시 인도와 마찬가지로 水瓶印과 無持物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용화수인 도상의 원류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도 확인된다. 즉 東魏 武定元年(543)銘 미륵보살교각상도3, 北齊 天保2年(551)銘 미륵보살교각상도4 등에서 확인되는데, 지물의 형태는 끝이 날카로운 보주형에 가깝다. 이는 당시 보살상에 보편적으로 채용된 보주를 미륵

도 3 석조미륵보살교각상, 東魏 武定元年(543), 31cm, 傳山西省高平縣將來
도 4 석조미륵보살교각상, 北齊 天保2年(551), 107cm, 北京 故宮博物院

보살상에 채용한 것으로 이해되며, 보주에서 차츰 용화 꽃모양으로 변화되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唐代에는 전대에 비해 보다 구법승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구법승들을 통해서 당시 인도에서 유행한 여러 불교 도상과 함께 용화수인 미륵도상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玄奘과 王玄策, 義淨을 비롯한 수많은 구법승들과 관리들의 귀당 후, 중국에서는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의 보관 항마촉지인불상이 크게 유행하였다.[16] 보드가야 불탑도5 중심 불전에 모셔진 석가모니불상은 19세기 중수 때 힌두교 사원에서 옮겨온 10세기 후기의 불상이다도6.[17] 특히 이 불상과 관련한 玄奘의 기록에, 보드가야의 불전 밖 좌우에 彌勒과 觀音이 시립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18] 보드가야 삼존형식은 당시 유행했던 석가삼존의 형식인 보관을 쓴 항마촉지인을 중심으로 감실 밖 좌우에는 寶冠 佛塔의 소형 꽃들이 다발을 이루는 龍華를 잡은 彌勒菩薩과 寶冠 化佛의 단판의 蓮花를 잡은 觀音菩薩일 것이다. 이러한 석가삼존 도상은 중국의 삼존도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측천무후의 명에 의해 건립된(703년) 西安 光宅寺 七寶臺를 장엄했던 다양한 불감을 들 수 있

16 金理那, 「印度佛像의 中國傳來考」,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一潮閣, 1995), pp.270-290.

17 Leoshko, "The Vajrasana Buddha," *Bodhgaya: the Site of Enlightenment*(Bombay: Marg publication, 1988), p.40.

18 玄奘, 『大唐西域記』 卷第8(『新脩大藏經』 第51卷), p.916上.

도 5 보드가야 대탑, 높이 55m
도 6 보드가야 중심불전 불좌상, 10세기

도 7 칠보대 석조석가삼존상, 8세기 초, 동경국립박물관
도 8 석조미륵삼존상, 長安3年(703), 동경국립박물관

다. 이들 불감들은 다소 중국적인 변용이 보이지만, 우선 東京國立博物館所藏 七寶臺 三尊像의 본존은 머리에 화려한 보관과 팔찌를 착용하고, 촉지인을 결하였다도7. 우협시 보살상은 오른손은 내려 정병을 잡고 왼손은 버들가지를 들어 관음의 도상적 특징을 보인다. 좌협시상은 오른손은 꽃가지 형태의 지물을 들고 있는데, 아마도 龍華를 받쳐 든 미륵보살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협시상의 도상적 특징은 長安3年(703)명 彌勒三尊像의 협시상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도8. 우리나라의 경우 칠보대 석가삼존의 도상은 통일신라 8세기 초에 조성된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가삼존상에서 그 영향이 엿보인다. 칠불암 마애석가삼존상은 항마

도 9 금동미륵보살좌상, 遼代
도 10 〈미륵보살도〉, 985년경, 京都 清凉寺 불입상 복장납입품

촉지인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우측에 정병을 쥔 보살상을, 좌측에 짧은 줄기가 표현된 꽃을 잡은 보살상을 배치하였는데, 칠보대 석가삼존상의 도상과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칠불암 삼존불은 구법승들에 의해 중국에 전해진 보드가야 항마촉지인 석가삼존 도상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상으로 추정된다.[19]

요대에는 불공이 한역한 밀교경전에 근거하여 물병과 함께 보관에 佛塔을 둔 미륵상이 등장하고도9, 일본승 주연(?-1106)이 雍熙 2년(985)에 일본으로 가져온 京都 清凉寺 불상 복장에 납입되었던 〈彌勒菩薩圖〉에서는 團扇처럼 보이는 지물이 나타나고 있는데도10, 이는 인도 팔라기 용화의 중국적 변용으로, 이 상이 잡고 있는 단선형의 지물은 이천 장암리 마애미륵보살반가상의 단선형과 용화가 혼합된 미륵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20]

---

19 칠불암 조각과 인도 보드가야 조각 및 당 장안 칠보대 조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文明大, 「新羅四方佛의 展開와 七佛庵 佛像彫刻의 研究」, 『美術資料』 27(國立中央博物館, 1980), pp.1-23; 金理那, 「統一新羅時代 前期의 佛教彫刻 様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一潮閣, 1995), pp.174-180 참조. 특히 문명대 교수는 마애삼존불의 본존을 현장과 왕현책 등에 의해 중국에 전래된 항마촉지인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석가모니불로 추정하였다. 좌우협시 보살상들의 존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시하면서, 당시 석가삼존의 협시로 관음보살이 등장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필자는 인도에서 전래된 보드가야 항마촉지인 석가모니불상의 협시보살상이 미륵과 관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칠불암 마애삼존불의 협시보살상도 관음과 미륵을 협시로 한 삼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후에 언급할 고려시대 용화수인 미륵도상은 여래형 · 보살형 할 것 없이 보주에서 발전한 龍華峯形과 인도 팔라기에 정형화된 긴 가지의 다발형 용화가 함께 나타난다. 용화봉형이 내적 요인에 의해 발전된 형태라면, 龍華枝形은 다분히 외적 요인에 의해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IV. 용화의 상징적 의미

龍華手印의 龍華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석가모니불의 입멸 후 56억 7천만 년이 경과하면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교화를 마치고 이 세상의 龍華樹 아래에서 내려와 석가모니불이 구제하지 못한 중생들을 세 번의 설법을 통해 모두 구제한다는 말에서 유래한다.[21] 용화는 梵語로는 나가푸슈파(nāgapuṣpa)라고 하는 나무 이름으로,[22] 那伽樹 또는 용화보리수라고도 한다.[23] 『彌勒大成佛經』에는 "용화가지는 보배 龍처럼 백 가지 꽃을 토하고, 꽃잎 하나하나에는 칠보의 색을 띠며, 갖가지 다른 과일이 중생의 뜻에 따라 열린다"고 쓰여 있으며,[24] 『大日經疏』[25]와 신라시대 唯識學僧 憬興法師의 「三彌勒經疏」에도 유사한 내용의 주석이 보인다.[26] 중국 법상종의 조사 慈恩 窺基의 제자인 大乘燈禪師는 "항상 도솔천의 업을 다하여 慈氏菩薩을 만날 것을 바라고 매일 龍華 한두 장을 그려 마음속에 간직하는 지성을 나타냈다"[27]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과 우리나라 유식학승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용화가 형상화되고 있다. 989년 법현이 한역한 『佛說大乘觀相曼奈羅淨濟惡趣經』에는 "만나라

---

20 崔聖銀, 「高麗時代 佛教彫刻의 對中關係」, 『高麗 美術의 對中交涉』(예경, 2004), p.120.

21 吳亨根, 「新羅瑜伽思想의 展開와 彌勒信仰」, 『韓國彌勒思想研究』(東國大學校出版部, 1987), pp.94-95.

22 逸見梅榮, 『印度に於ける禮拜像の形式研究』(財團法人 東洋文庫, 1935), p.276.

23 이 나무는 인도 동서 양쪽에서 야생하며 수목으로 학명으로는 *Mesunarozburghii*라 한다. 禹貞相, 「圓覺寺 塔婆의 思想的 研究-특히 十三會에 대하여」, 『동국사상』 1(1958), p.89.

24 "…坐於金剛莊嚴道場龍華菩提樹下. 枝如寶龍吐百寶花. 一一葉葉作七寶色. 色色異果適衆生意. 天上人間爲有比. 樹高五十由旬. 枝葉四布放大光明…" 鳩摩羅什 譯, 「佛說彌勒大成佛經」, 『新脩大藏經』 4, No. 456, p.430.

25 『大日經疏』 7에 "奈那伽是龍樹華. 彌勒世尊於此樹下成佛. 是龍中所尙之華. 西方頗有其種"이라고 쓰여 있다.

26 "經曰坐於龍華以下 第二成菩提 此中五 一成道 二天龍雨華 三動世界怖魔 四放光引可度 五演梵音衆得益 是初也 謂樹枝如寶龍坐百寶華 故名龍華樹也…" 憬興, 「三彌勒經疏」, 『韓國佛教全書』 第2冊(東國大學校出版部, 1994), p.112.

27 義淨撰, 「大唐西域求法高僧傳」, 『新脩大藏經』 卷51, p.4中 · 下; 義淨撰, 李龍範 譯, 「大唐西域求法高僧傳」, 『現代佛教新書』 26(東國大學校佛典刊行委員會, 1980), p.51.

의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우선 자씨보살이 앉되, 황색의 몸에 불꽃이 치성하고 오른손으로 용화수 가지를 잡고, 왼손으로 軍持를 잡는다"라고[28] 미륵보살의 도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고려시대 용화수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경전이다.

한편 신라는 스스로 미륵불국토임을 내세우기 위하여 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비유하였으며, 화랑을 대표하는 김유신이 이끄는 화랑의 무리를 용화향도라고 지칭했다. 그의 용화향도는 바로 미륵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였다.[29] 따라서 용화는 곧 용화정토(미륵정토)를 의미하는 것이자 미륵불 자체를 지칭하는 함축적인 단어로 사용되었다. 또한 미륵대성의 화신으로 받들어진 화랑 미시랑의 미시는 곧 미륵을 가리키며, 우리나라 고유어로 龍을 가리킨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龍華는 龍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용은 고대 농경사회에서 물을 관장하던 신으로, 미륵경전에서는 미륵의 용화정토를 청정히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륵과 관련이 깊은 상서로운 동물이다.[30] 용은 그의 뇌 속에서 나온 여의주, 즉 보주를 품고 다니는데, 미륵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용화 역시 용이 토해낸 백 가지 보배로운 꽃과 같다고 한다. 중국의 동위 무정원년명 미륵보살교각상이나 북제 천보2년명 미륵보살교각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숙수사지출토 금동불입상, 그리고 1934년 소실된 것을 1938년에 김복진이 복원한 금산사 미륵전의 미륵불상 등에서 보주형의 지물을 들고 있는데,[31]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고려시대 용화인은 경전의 내용과 전대의 조각전통, 그리고 인도 팔라기에 정착된 미륵도상이 求法僧들과 傳法僧들을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조 때 고려로 온 印度僧 摩睺羅(929년 입국)와[32] 인도 마가다국의 승려 弘梵大師(938년 입국)[33] 등이 특히 주목된다. 이들의 고려 입국 목적은 기록이 소략하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 황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새롭게 부흥하는 고려 황실

---

28 「佛說大乘觀想曼奈羅淨濟惡趣經」 上卷, 『한글대장경』, pp.338-339; 安貴淑, 「中國淨甁 硏究」(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p.48-49.

29 金煐泰, 「彌勒仙花攷」, 『佛敎學報』 3 · 4(佛敎文化硏究所, 1966), p.141.

30 『미륵대성불경』에 용화세계를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그곳에 복덕과 위력을 두루 갖춘 다라시기라는 용왕이 있을 것이다. 연못 근처에 있는 그의 궁전은 칠보누각처럼 밖으로 보이는데, 용왕은 밤이면 항상 사람으로 변하여 상서로운 힘이 있는 큰 병에 향수를 담아다 땅위에 뿌릴 것이다. 그래서 온 땅과 길은 기름칠한 것처럼 윤이 나고 청정하게 되어 길을 다닐 때 조금도 먼지가 일지 않느니라…"

31 韓國佛敎硏究院, 『金山寺』(一志社, 1977), p.70.

32 『高麗史』 卷第二, 世家第一 太祖, 己丑12年條.

33 『高麗史』 卷第二, 世家第二 太祖二, 戊戌2年條.

에 부합하는 새로운 불교사상을 전하였고, 이와 함께 인도 팔라기에 유행한 여러 불교도상 중 시대적으로 요망되던 새로운 미륵도상을 고려에 전했을 것이다.

V. 고려시대 용화수인 미륵상의 형식

1) 如來形

고려시대 용화인 미륵상의 형식은 우선 여래형과 보살형으로 구분되며, 보관의 착용여부와 용화의 형태에 따라 몇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려시대 미륵상은 상 · 하생 신앙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如來形과 菩薩形이 혼합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륵상의 형식 분류는 용화와 보관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34]

(1) 龍華峯形 佛像

용화봉형 불상은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 줄기가 없는 용화봉을 잡고 있는 형식과 머리에 보관을 쓰고 용화를 들고 있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보관을 쓰지 않는 형식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부터 등장하는 가장 이른 시기에 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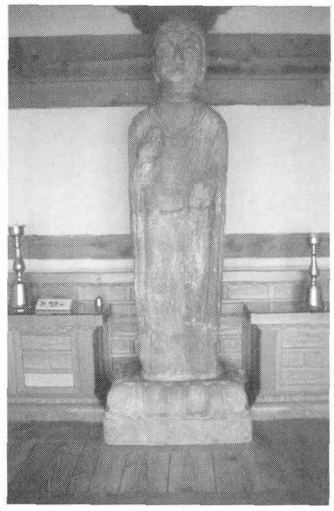
우선 용덕사 석불입상[35]은 양 어깨를 걸친 통견의 불의가 가슴 위로 여러 개의 U자형의 주름을 이루면서 내려오다가 넙적다리 부근에서 갈라져서 정강이까지 흘러내린 이른바 우전왕식 통견착의법을 보이고 있다.[36] 수인은 두 팔을 겨드랑이 쪽으로 당겨 붙이고,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 손등을 보인 채 잎이 중첩으로 표현된 용화봉을 감싸 쥐고 있는 형태이다 도11. 중원향토자료관 석불입상 역시 거의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보주형으로 생긴

---

34 흔히 고려시대 미륵상이 쓰고 있는 다각의 보관을 보개로 칭하고 있지만, 보개와 보관은 머리에 쓴다는 의미에서 일맥상통하므로, 보관으로 통칭하고자 하며, 보관을 쓰고 지물이 없는 상들은 본 논문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35 현재 용인 용덕사 용화전 내에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은 원래 용덕사 바로 아래에 있는 용덕저수지 옆 보호각 안에 모셔져 있었다. 李仁寧, 『내고장 龍仁의 文化遺蹟總覽』(용인문화원, 1997); 『龍仁의 佛教遺蹟』(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0), pp.79-82; 배진달, 「龍德寺 전래의 불상 몇 구」, 『聖寶』 3(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2001), p.36.

36 우전왕식 통견착의법에 대해서는 金理那, 「新羅甘山寺如來式佛像衣文と日本佛像の關係」, 『佛教藝術』 110(每日新聞社, 1976. 12), pp.206-238; 同著, 「新羅 甘山寺如來式 佛像의 衣文과 日本 佛像과의 關係」,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pp.206-2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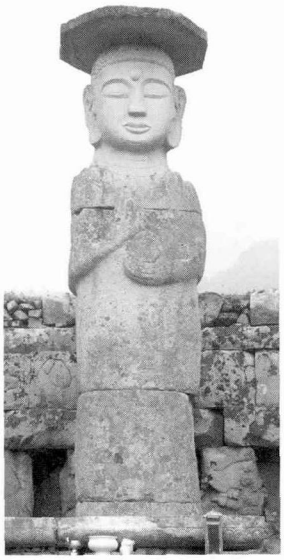


도 11 석불입상, 나말여초, 높이 231cm, 용인 용덕사
도 12 금동계미명삼존불 우협시, 563년, 높이 17.5cm, 간송미술관

용화 부분은 마멸이 심하다. 두 손을 어깨까지 들어올린 용화수인은 삼국시대 계미명 금동일광삼존불의 좌우협시상이 가슴 부근에서 보주형의 지물을 잡고 있는 예와 유사하지만, 앞선 시대 여래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식으로 신라 말 고려 초에 나타나는 용화수인으로 볼 수 있다도 12.

다음은 보관을 착용하고 용화를 들고 있는 형식으로, 우선 미륵대원 석불입상을 들 수 있다. 미륵대원 석굴은 고려 초에 造營된 석굴로 토함산 석굴이 변화되어 나타난 명확하고도 웅대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 석굴사원은 자연석으로 잘 다듬어 쌓아 방형의 석실을 만들고 그 중심에 대형의 석불을 봉안하였다. 여러 차례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불상이 있는 전실에서 彌勒堂, 彌勒堂草라는 명문와당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불전 내에 봉안된 佛像이 彌勒像임을 시사한다. 이외 1192년에 중수되었음을 말해주는 기와도 다수 출토되었다.[37] 이 석불입상은 6개의 큼직한 돌을 가구하여 불신과 불두를 이루고 있다. 신체는 방형의 석주형을 띠고 있지만 얼굴은 상당히 정성을 기울여 조각하였다. 머리에는 육계에 꼭 맞게 관모가 없는 팔각의 보관을 착용하고, 왼손으로 잎이 새겨진 큼직한 용화봉을 배 부근에서 받쳐 들었

37 출토된 銘文瓦들 중에 「明昌三年 大院寺住持僧元明」, 「瓦立僧元明里儒造」, 「明昌三年金堂改盖□□□」, 「大院寺住持大師□瓦立俾□□□□□□□四月現造」라고 있어 明昌三年(1192)에 金堂을 改葺하고 그 와를 僧元明과 里儒가 만들어 작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彌勒里寺址 發掘調査報告書』(淸州大學校博物館, 1972. 2); 『中原郡 彌勒里石窟 實測調査報告書』(忠淸北道 中原郡, 1979. 2); 『彌勒里寺址 2次 發掘調査報告書』(淸州大學校博物館, 1979. 8); 『彌勒里寺址 3次 發掘調査報告書』(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2. 1).



도 13 석불입상, 고려 전기, 높이 1,000cm, 중원 미륵대원

도 14 석불입상, 고려 전기, 높이 356cm, 증평 남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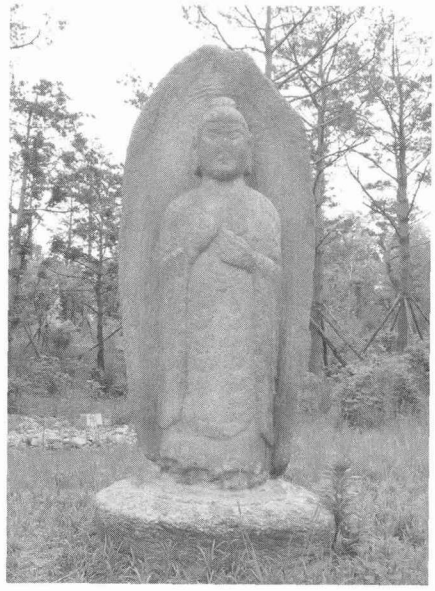
도 15 석불입상, 고려 후기, 높이 269cm, 대전 봉덕사

다도13. 용화의 형태는 하부가 넓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점점 축소되는 보주형을 띠고 있다. 이 계통의 증평 남하리 석불입상은 고려 전기에 유행한 冠帶가 표현된 높은 원통형의 보관을 착용한 점이 다르지만, 왼손으로 잎이 새겨진 큼직한 용화를 받쳐 들고 있는 모습에서 유사하다도14. 증평 남하리 상의 보관과 수인은 고려 후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대전 봉덕사 석불입상에서도 공통된 모습을 보인다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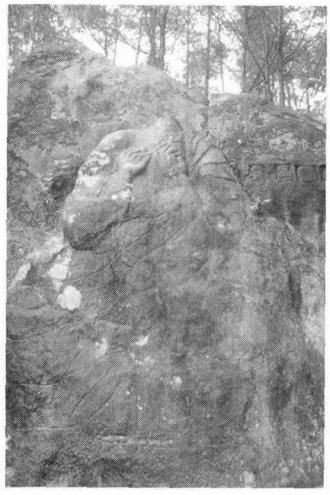
⑵ 龍華短枝形 佛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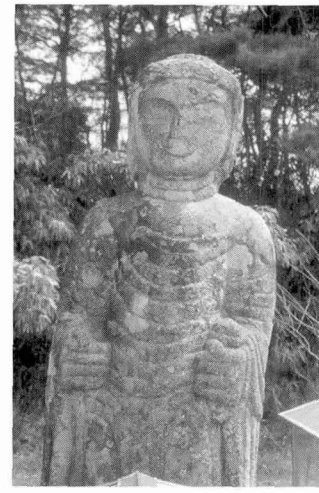
다음은 통견 착의법을 하고, 짧은 용화가지를 잡고 있는 龍華短枝形이다. 이 형식에 속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석불입상은 東垣寄贈遺物로, 출토지는 분명치 않다. 수인은 두 손을 가슴 앞까지 들어 설법인을 취한 듯이 올리고, 왼손으로 줄기가 짧고 세 겹으로 겹쳐진 부채 모양의 활짝 핀 용화를 잡고 있다도16. 특히 이 불상은 왼쪽 가슴에 가사 끈 자락이 표현된 특색 있는 착의법을 보이고 있는데, 경주 남산 용장사지 미륵상도17과의 관련성에서 주목을 끄는 요소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상과 유사한 수인의 형태는 영주 학가산 마애불상에서도 보인다. 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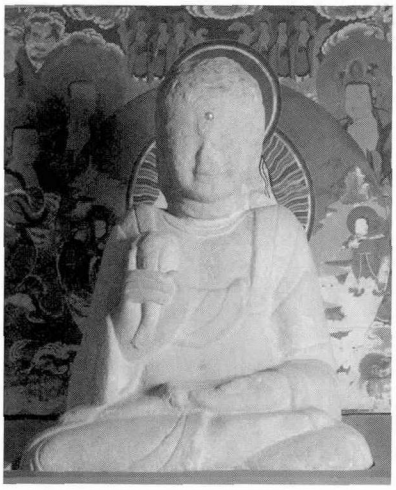
도 16 석불입상, 나말여초, 높이 179cm, 국립중앙박물관(좌)
도 17 석조미륵불좌상, 통일신라, 경주 남산 용장사지(우)





도 18 마애불입상, 고려시대, 높이 약 400cm, 영주 학가산
도 19 석불입상, 고려 전기, 높이 263cm, 담양 분향리

산 마애불 역시 두 손을 가슴까지 들어올려 설법인을 취한 것처럼 하여 왼손으로 S자형으로 굴곡을 준 짧은 가지형의 용화봉을 잡았다도 18. 이외 담향 분향리 석불입상은 허리춤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른손으로 가지가 짧게 표현된 용화봉을 잡았고도 19, 청원 운룡사 석불좌상 역시 왼손을 가슴까지 들어올려 사실적으로 묘사된 짧은 가지가 표현된 용화봉을 잡았다도 20. 가지가 짧게 표현된 용화수인은 용화의 형태, 쥐는 방식 등 공통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도 20 석불좌상, 고려시대, 높이 100cm, 청원 운룡사

도 21 마애불좌상, 고려시대, 높이 450cm, 남원 노적봉

남원 노적봉 마애불유희좌상은 짧은 가지 위에 활짝 핀 용화를 가슴 부근에서 두 손을 V자형으로 곧추세워 잡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도 21. 특히 발을 풀어헤치고 편안히 앉은 유희좌, 두광 주위에 표현된 구름, 생동감 있는 연화좌 등은 도솔천에서 하생하는 미륵불을 극적으로 표현해 내기 위한 장치로 생각된다.

⑶ 寶冠 龍華枝形 佛像

이 형식은, 머리에는 다각의 보관 또는 원형의 벙거지형 보관을 착용하고 있지만, 두 손으로 가지가 긴 용화의 상 · 하단을 쥐고 있다.

진천 용화사 석불입상은 5m가 넘는 대형불상으로 金庾信 將軍의 덕을 숭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전하고 있고,[38] 『常山誌』 古蹟條에는 옛날 거란병들이 이곳과 가까운 德山까지 쳐들어 왔다가 멀리서 이 미륵불상을 보고 큰 장군이 있는 줄 알고 도주하였다는 전설을 전하고 있다.[39] 이 상의 머리는 소발로 표현하였고, 머리 위에는 높은 관모가 표현된 벙거지

[38] 진천지역은 김유신 장군이 태어난 곳으로, 김유신 장군 탄생지와 태실, 蓮寶井, 김유신 장군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한 吉祥祠 등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이 불상을 김유신 장군과 결부시켜 장군의 덕을 숭모하기 위해 조성되었다고 믿고 있다. 『寺誌』(忠淸北道, 1982), pp.397-400; 『鎭川金庾信將軍史蹟 學術調査 報告書』(韓國敎員大學校博物館, 1999) 참조.

[39] "彌勒石佛 邑之對案楪尾山有一彌勒端供儼臨於岸側其高五丈餘 傳說賊兵留陳魚德文前坪將向府中之際一員將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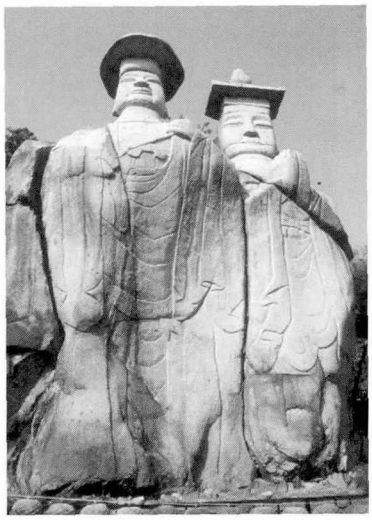
도 22 석불입상, 고려전기, 높이 약 500cm, 진천 용화사
도 23 석불좌상, 고려시대, 높이 340cm, 고성 월비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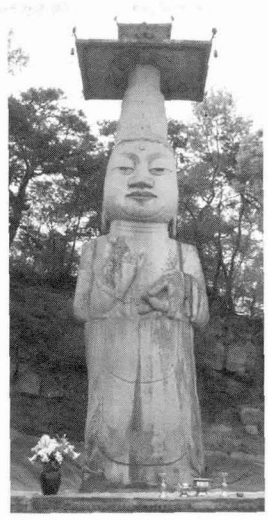
형 보관을 착용하였다. 가슴을 크게 연 통견을 착용하였으며, 목에는 세 줄로 구성된 영락을 부착하여 불신을 장엄하였다. 오른손은 힘 있게 들어 주먹을 불끈 쥐고 가늘고 얕게 돋을새김한 긴 용화가지의 윗부분을 잡았고, 왼손은 중지를 검지 뒤쪽으로 제치고 나머지 손가락은 위로 펴서 용화가지의 아랫부분을 받쳐 들고 있다도 22. 용화는 끝부분에서 두 가닥으로 갈라져 각각의 줄기에 꽃을 표현하여 다발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두 손을 사용하여 용화의 상 · 하단을 나누어 잡은 모습은 현재 북한지역 내에 있는 고성 월비산리 석불좌상에서도 볼 수 있다.[40] 이 상은 오른손을 배 부근까지 들어올려 꽃가지의 하단부를 움켜잡고 왼손은 가슴 부근에서 중지와 약지로 꽃가지의 중단부를 살짝 누르고 있다도 23. 그러나 따로 만들어 끼운 꽃 부분은 결실되었다. 파주 용미리 마애미륵상 역시 오른손의 검지와 약지를 이용해서 굵게 돋을새김한 용화가지의 하단부를 잡고 있으며, 왼손은 어깨까지 들어 주먹을 쥔 채 용화가지의 상단부를 잡고 있다도 24.[41] 이 두 상은 진천 용화사 상의 수인과 반대로 조성

身長五丈威風凜凜若將衝陳賊兵望風而走傍觀士人其後視之則乃楪尾山彌勒也 何年代何賊兵無可徵然其現靈護邑與恩津彌勒逐契丹兵於鴨綠江事相似甚可異也." 「常山誌」, 『韓國地理風俗誌叢書』(景仁文化社, 1990).

40 『북한의 문화재와 불교유적』 IV(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126.

41 최근 불신에 새겨진 명문이 판독되어 1471년(成化7) 함양군, 심장기, 한명회 등이 세조를 추도하고 성종과 정희왕후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성한 미륵불상이라는 설이 제기되었다. 이경화, 「坡州 龍尾里 磨崖二佛竝立像의 造成時期와 背景－成化7年 造成說을 提起하며－」, 『불교미술사학』 3(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5), pp.71-96.





도 24 마애불입상, 고려시대, 높이 1740cm, 파주 용미리
도 25 석조미륵보살입상, 고려 전기, 높이 1770cm, 논산 관촉사

되었고, 용화 역시 따로 만들어 꽂을 수 있도록 한 차이점이 있다.

2) 菩薩形

(1) 塔形寶冠 龍華枝形 菩薩像

이 형식은 여래의 착의법과 높은 관모 위에 천판을 이중으로 쌓아 올린 탑형 보관을 착용하고 따로 제작된 긴 가지형의 용화를 잡고 있다.

먼저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은 1530년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 1743년에 세워진 관촉사 사적비 등에 승려 慧明이 광종의 명을 받들어 제작한 '彌勒像'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도 25.[42] 이 상의 머리에는 높은 원통형의 관모 위에 중층으로 천판을 올린 높은 탑형 보관을 쓰고, 오른손으로 철제로 제작된 용화가지를 잡고 있다. 불신에 장엄된 장신구와 寶髮로 표현된 머리카락을 통해서 보살형으로 조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착의법에서 천의가 아닌 여래의 불의를 입고 있어 불과 보살의 이중적 성격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이러한 표현 방식은 미륵신앙이 내포하고 있는 상 · 하생의 이원적인 신앙형태를 하나의 상에 담아내고자 했던 의도된 표현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두 손으로 철제의 용화가지를 잡고 있는

4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8 恩津(右典刊行會, 1957), p.300; 「灌燭寺事蹟碑」, 『朝鮮金石總覽』 下(아세아문화사, 1976), p.1153.

도 26 석조미륵보살입상,
고려 전기, 높이 1,000cm,
부여 대조사

도 27 석조보살입상,
고려 전기, 높이 207cm,
김천 광덕동

도 28 마애관음보살좌상, 985년,
고령 개포동

것이 차이점이다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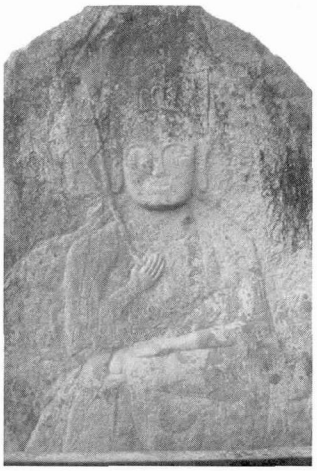
(2) 寶冠 龍華枝形 菩薩

이 형식은 머리에 화려하고 높은 보관을 착용하고, 장신구로 불신을 장엄하였다. 손에는 긴 가지의 용화를 잡고 있다. 모두 여래의 착의법을 하고 있고, 한쪽 무릎을 다른 한쪽 무릎에 완전히 포개어 올리지 않은 유희좌상이 많다.

김천 광덕동 보살입상은 꽃무늬로 장식된 三山花形의 화려한 보관을 쓰고, 보관 좌우에는 冠帶가 관을 고정시킨 리본이 표현되었다도 27. 이러한 보관의 모습은 宋代 조각에서부터 나타나는 형식으로,[43] 985년 고령 개포동 마애보살좌상 등 고려 초기에 조성된 상에서 많이 나타난다도 28. 이 광덕동 보살상 역시 보살형으로 조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佛衣를 연상시키는 장포형의 불의를 입고 있다. 수인은 오른손을 가슴에 들어 2단으로 피어오른 화려한 용화를 잡았다.

利川 太平興國 2年(981)銘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은[44] 반가좌로 앉은 좌법이나, 곁가

[43] 崔聖銀, 「羅末麗初 佛教彫刻의 對中關係에 대한 考察」, 『佛教美術』 11(東國大學校博物館, 1992), pp.125-126.
[44] 명문은 다음과 같다. "太平興國六年辛巳二月十三日 □□□道俗香徒十二□人 上首□□□□…" 『이천 태평흥



도 29 마애보살반가상, 981년, 높이 320cm, 이천 장암리
도 30 마애미륵보살유희좌상, 고려 전기, 평양 영명사 (현재 용화사 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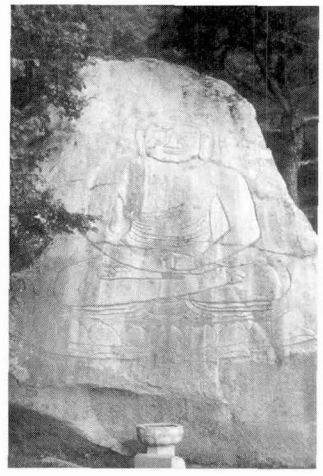
지가 표현된 긴 용화의 형태도29 등은 평양 영명사 불감 내 북면에 새겨진 마애보살유희좌상도30과 거의 흡사하다. 특히 이들 두 상의 보관에 표현된 寶塔과 장암리상의 團扇에 가까운 용화는 日本 京都 淸凉寺 木佛立像의 복장에서 발견된 미륵보살도에서 보이는 도상과 유사하다도9. 특히 경도 청량사 미륵보살도의 수인은 팔라기의 용화수인이 중국적으로 변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상은 인도 팔라기 미륵도상의 영향을 직 · 간접적으로 받아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45]

이러한 도상적 특징은 동화사 염불암 마애보살유희좌상에서도 나타난다. 동화사는 전통적인 진표계 법상종 사찰로 염불암 역시 동화사의 부속암자로서 미륵신앙이 주가 되었을 것이다. 큼직한 바위의 남면에는 유희좌로 앉은 미륵보살상을 새기고도31, 서면에는 미타정인의 아미타불좌상을 조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도32. 이러한 배치형식은 통일신라 이래 법상종의 전통적인 존상배치법을 따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46] 수인은 두 손을 사용하여 용화가지의 상 · 하단을 나누어 잡고 있다. 제법 높게 돋을새김한 용화가지는 철근이 휘어지듯 구불거리고 있으며, 가지의 상부에는 꽃잎과 반쯤 핀 용화를 표현하고 있다.

국마애보살좌상 주변지역 발굴조사 보고서』(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 이천시, 2002), p.65.

45 최성은, 「高麗時代 佛敎彫刻의 對中關係」, pp.120-121.

46 文明大,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甘山寺 彌勒菩薩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62 · 63(歷史學會, 1974) 참조.



도 31 마애보살유희좌상, 고려 전기, 높이 450cm, 동화사 염불암
도 32 마애불좌상, 고려 전기, 높이 400cm, 동화사 염불암

표 1 고려시대 용화수인 미륵도상의 특징

존격	형식	존상명	자세	머리형	寶冠	배치 형식	착의법	크기	장신구
如來形	龍華峯形	용인 용덕사 상	立像	素髮	無	獨尊	通肩	2.31m	
		중원 향토자료관 상	立像	螺髮	無	獨尊	通肩	2m	
		중원미륵대원 석불입상	立像	螺髮	八角	獨尊	通肩	10m	
		증평 남하리 석불입상	立像	素髮	寶冠	獨尊	통견	3.56m	
		대전 봉덕사 석불입상	立像	素髮	寶冠	獨尊	偏袒右肩	2.69m	臂釧, 腕釧
	龍華短枝形	국립중앙박물관 석불상	立像	素髮	無	獨尊	通肩 (가사끈)	1.79m	
		담양분향리 석불상	立像	螺髮	無	獨尊	通肩	2.63m	
		영주 학가산 마애불	立像	缺失	無	獨尊	通肩	약 4m	
		청원 운룡사 석불좌상	坐像	螺髮	無	獨尊	通肩	1.0m	
		남원 노적봉 마애불입상	遊戱坐	螺髮	無	獨尊	通肩	4.5m	
	寶冠龍華枝形	진천 용화사 석불입상	立像	素髮	圓形	獨尊	通肩	약 5m	頸飾, 腕釧
		고성 월비산리 석불좌상	坐像	螺髮	八角	獨尊	通肩	3.40m	
		용미리 마애불상	立像	素髮	圓形	二佛並立	通肩	17.4m	
菩薩形	塔形寶冠龍華枝形	관촉사석조보살상	立像	寶髮	塔形	〃	通肩	17.7m	腕釧
		대조사 석조보살상	立像	寶髮	塔形	〃	通肩	10m	頸飾
	寶冠龍華枝形	금릉 광덕동 석조보살상	立像	寶髮	寶冠	獨尊	通肩	2.07m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상	半跏坐	寶髮	寶冠	獨尊	通肩	3.2m	腕釧
		평양 영명사 마애보살상	遊戱坐	寶髮	寶冠	4방불	—	—	
		동화사 염불암 마애보살상	遊戱坐	寶髮	寶冠	二佛	偏袒右肩	4.5m	臂釧, 腕釧

IV. 고려시대 용화수인 미륵상의 도상특징 및 해석

1. 龍華手印

먼저 용화는 그 표현 형태와 용화를 쥐는 형태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용화의 발전단계는 우선 용화봉형과 짧은 가지형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용화봉형의 도상전통은 삼국시대의 숙수사지 금동불입상과 윤을곡 좌협시 불상과 같이 한 손으로 보주형 지물을 받쳐 든 전통적인 형식이 진전되어 용인 용덕사 상과 중원향토자료관 상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증평 남하리 상과 중원 미륵대원 상과 같이 한 손으로 받쳐 든 형식은 경주 남산 윤을곡 마애삼존불 좌협시 불상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으며, 이러한 형식이 발전하여 두 손으로 용화를 받쳐 든 김천 청암사 약광전 석조보살좌상, 영동 뉴교리출토 석조보살좌상과[47] 보령 금강암 미륵불로 전개되고 있다.

짧은 용화가지형의 대표적인 예는 현재 지물은 사라져서 볼 수 없지만 경주 삼화령 미륵세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상으로는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이 있는데, 이 상의 용화는 꽃잎이 중첩된 다발형을 이루고 있다. 나말여초 작품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불입상의 용화형태는 경주 남산 신선암 상과 흡사하다. 짧은 가지를 가진 용화수인은 쥐는 형식과 손의 위치 등 일정한 규칙 없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꽃의 형태도 봉형에서 활짝 핀 형태까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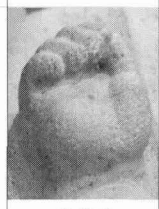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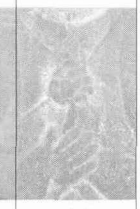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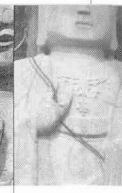
긴 용화지형은 고려 초 김천 광덕동 보살상과 관촉사 미륵보살상에서 확인되는데, 두 상 모두 오른손으로 긴 가지의 용화를 잡았다. 그러나 10세기 중반에 조성된 대조사 보살상을 기점으로 두 손으로 용화가지를 상 · 하단으로 나누어 쥐는 형식이 등장하여 이후 크게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은 관악산 마애미륵불(1630년)과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불(1666년경) 등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려시대 등장하는 용화수인은 전대의 조각전통과 함께 밀교도상 그리고 인도 팔라시대에 정형화된 소형 잎들이 다발을 이룬 용화인 도상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고려시대 미륵상들이 취하고 있는 용화수인은 미륵

---

[47] 『國立淸州博物館』(國立淸州博物館, 2001), p.127, 도 182.

표 2 용화수인의 시대별 형태

형식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龍華 峯形						
	숙수사지출토 금동불입상	남산 윤을곡 마애불(좌)	용인 용덕사	증평 남하리	중원 미륵대원	보령 금강암
龍華 短枝形						
	삼화령 미륵세존	경주 남산 신선암	국립중앙박물관	담양 분향리	청원 운룡사	서울 약사사
龍華 長枝形						
			김천 광덕동	논산 관촉사	부여 대조사	동화사 염불암	관악산 봉천동

대원의 발굴에서 출토된 미륵당명 기와와 관촉사, 대조사, 그리고 진천 용화사 미륵상 등은 후대의 기록이지만, 모두 미륵상을 조성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미륵관련 연기설화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상의 출현은 광종대의 전제 개혁정치를 펼칠 때 법상종의 계율중심 사상이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고려 광종 때 건립된 관촉사 상을 필두로 대형 용화인의 미륵도상이 유행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寶冠

고려시대 미륵상의 도상적 특징 중 용화와 함께 또 하나 들 수 있는 게 寶冠이다. 보관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관촉사 보살상과 대조사 보살상이 쓰고 있는 보관

도 33-1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부분

도 33 사사자삼층석탑, 통일신라, 높이 671cm, 구례 화엄사

은 王卽佛 사상에 입각한 황제의 면류관에서 채용된 도상으로 이미 논의된 바 있다.[48] 또한 이러한 면류관형 보관은 미래에 佛이 되거나 미래에 불이 된 미륵존상이 쓸 수 있는 관으로서, 미래에 불이 되거나 미래에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미륵존상을 숭앙하였으므로 왕관을 쓰도록 하였던 것으로도 해석되었다.[49]

물론 이들 보살상이 쓰고 있는 보관은 王卽佛 사상에 입각하여 황제의 면류관에서 채용되었을 가능성도 높지만, 밀교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미륵존상의 도상적 특징인 佛塔일 수도 있다. 미륵의 보관에 탑을 두는 근거는 不空이 漢譯한 『八大菩薩曼荼羅經』과 「胎藏界八葉院」 중에 "왼손은 가슴에 대어 밖으로 향해서 펴고 오른손은 蓮上甁을 잡고 冠中에 率都婆를 두고, 塔中에 사리를 안치한다"라는 기록이 있기에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 고려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50] 즉 관촉사 상과 대조사 상의 중층 천판 아랫면에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모티프는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도33, 33-1의 조형에서 힌트를 얻어 고려시대의 王卽佛 사상과 경전 의궤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혼용시켜 창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석가의 사리가 모셔진 탑을 미륵의 보관에 둠으로써 석가의 법을 계승하는 당래불이자 미래불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를

48 崔善柱, 「高麗前期 石造大佛 硏究」(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6), pp.47-49.

49 文明大, 『大鳥寺 石彌勒菩薩立像』(扶餘郡 · 韓國美術史硏究所, 1999), p.31.

50 『新纂佛像圖鑑』(1972), pp.56-57.

도 34 〈미륵하생경변상도〉, 고려 후기, 견본채색, 176×91cm, 日本 知恩院

도 35 〈미륵하생경변상도〉, 1350년, 178×90.3cm, 日本 親王院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중층 보관의 형태는 고려 후기 제작으로 추정되고 있는 日本 知恩院 所藏 〈彌勒下生經變相圖〉도34에서도 확인된다. 즉 미륵불의 중앙계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서로운 빛에 의해 중층 팔각의 寶蓋가 떠받쳐져 있는데, 이는 1350년 日本 親王院 所藏 〈彌勒下生經變相圖〉도35에서도 확인되는 고려시대 미륵불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외 팔각형의 보관을 착용하고 있는 상은 미륵대원 상과 고성 월비산리 상이 있다. 이 두 상은 탑형보관상과는 달리 보관의 하단부를 둥글게 홈을 파서 육계와 결합시킨 형식이다. 이러한 보관 역시 고려시대 다각석탑 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륵의 보관은 석탑의 형태 변화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3. 着衣法

고려시대 조성된 용화수인 미륵상들은 여래형뿐만 아니라 보살형까지 모두 여래의 착의법인 불의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관촉사 보살상, 대조사 보살상, 광덕동 보살상 등은 보살형으로 조성되었음에도 천의가 아닌 장포형의 佛衣를 입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 관촉사와 대조사 미륵보살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보살상의 착의법이다.

이런 장포형의 佛衣는 王者의 복식과 연관된 새로운 요소로 王卽佛 사상과 함께 미륵하생신앙이 결합된 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51] 이는 보살상에 如來의 佛衣와 함께 寶冠을 표현함으로써 왕즉불 사상에 입각한 전륜성왕의 王者的인 이미지와 함께 미륵 상·하생의 이원적인 사상을 성공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여래형 착의법과 함께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불입상에서 표현된 왼쪽 어깨의 가사끈이다. 가사끈의 표현은 법상종의 조사 태현법사가 주석한 경주 남산 용장사지 미륵상에 표현된 이래, 경주 남산 삼릉계 석불좌상, 동화사 입구 마애불상 등 전국적으로 폭넓게 확인된다. 미륵불에 가사끈이 표현될 수 있는 근거는 『中阿含經』 13권 說本經과 『彌勒大成佛經』의 기록을 들 수 있다. 『중아함경』에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미륵이 성불할 것을 수기하고 직접 금실로 짠 가사를 전하는 장면이 설해져 있다. 『미륵대성불경』에는 가섭이 입멸하지 않고 계족산 석실에 선정에 들어가 미륵불이 출세할 때 석가의 의발을 전하는 내용을 특별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경전의 내용은 돈황의 〈미륵정토변상도〉에서는 구획을 나누어 특별히 다루어지고 있으며도36, 고려 〈미륵하생경변상도〉에는 화면의 우측에서 가섭존자가 미륵불에게 석가의 衣鉢을 전달하는 장면이 주요부분으로 묘사되었다도37. 입체적인 조각품에서 가섭의 의발 전수 장면을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용장사지 미륵불과 국립중앙박물관 불상과 같이 가사끈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도 36 돈황석굴 112굴 〈미륵정토변상도〉 중 迦葉獻袈裟 장면

도 37 日本 知恩院 所藏 〈미륵하생경변상도〉 迦葉獻衣鉢 장면

51 崔聖銀, 「唐末五代와 遼代의 圓筒形 高冠菩薩像에 대한 一考察—高麗初期 高冠形 菩薩像과 관련하여」, 『講座美術史』 9(韓國美術史硏究所, 1997. 9), p.61.

도 38 마애보살유희좌상, 통일신라, 높이 198cm, 경주 남산 신선암
도 39 마애불유희좌상, 통일신라, 높이 250cm, 동화사 입구

4. 姿勢

미륵상의 표현방식에서 이천 장암리 마애반가보살상, 평양 영명사 불감 내 보살유희좌상, 대구 동화사 염불암 마애보살유희좌상, 남원 노적동 마애불유희좌상 등에서는 광배와 대좌 주위의 구름표현과 더불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 있는 연화좌, 그리고 마애불·보살상에서는 반가상과 유희좌상이 많이 확인된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도솔천에서 설법하고 있는 미륵보살이 하생 시점을 맞이하여 결가부좌를 털고 용화수 아래로 하생하는 모습을 가장 적절하고 극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자세이자 모종의 장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보살상으로 표현된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도38과 여래상으로 표현된 대구 동화사 입구 마애불유희좌상도39 등 앞선 시기 미륵과 관련 있는 상들에서 이미 보인다. 이러한 전통이 고려시대 미륵불의 표현방식으로 계승·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신체표현

고려시대 미륵상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적인 조각의 흐름 속에 태조 때 조성된 개태사 삼존불상과 광종 때 조성된 관촉사 미륵상을 기점으로, 기념비적인 조각에 걸맞는 표현기법이 등장한다. 그것은 후백제가 최후로 항복한 황산 유탄령에 개태사를 세워 국민통합과 고려의 위력을 대내외에 널리 과시하고자 했고, 이것은 인접에 건립된 관촉사와 대조사도 같은

역할을 가졌다고 생각된다. 이곳 사찰에 조성된 불상들은 기념비 조각과 부합되게 대부분 크고 웅장하게 조성되었다. 미륵의 크기에 대해서 『彌勒來時經』과 『觀佛三昧海經』 念七佛品에는 과거칠불의 관법과 함께 크기가 설해져 있는데, 毘婆尸佛 十六由旬, 尸棄佛 四十二由旬, 毘舍佛 三十二由旬, 狗留孫佛 二十五由旬, 狗那含佛 二十由旬, 迦葉佛 十六丈, 釋迦佛 丈六, 彌勒世尊 十六丈이라고 설해져 있다. 『彌勒大成佛經』에는 구체적인 크기가 없지만, 석가불의 크기에 비교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해져 있다.

> 그 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십 팔뚝이나 되고 가슴둘레는 이십오 팔뚝이며 얼굴 길이가 십 팔뚝 반이고 코는 곧고 우뚝하게 솟았으며 몸매는 단정하기 짝이 없이 온갖 상호를 갖추었으며, 낱낱의 상에는 팔만 사천의 모습으로 각각 장엄하여 온몸이 금불상과 같으니라….[52]

도 40 철당간, 962년, 높이 1270cm, 청주 용두사지

높이가 황금산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삼악도를 벗어나게 한다라고 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에 제작된 대형의 미륵상들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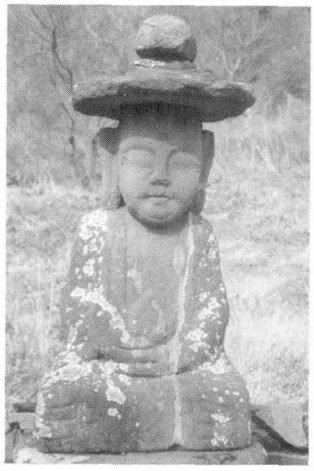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광종 13년(962)에 세워진 용두사지 당간도40에 적용된 31.5cm의 기준척을 대비해 관촉사 상을 분석해 보면 약 55.5(5장 이상)척이 된다.[53] 비록 1743년에 쓰여진 사적비이지만, 55척 5촌이라는 기록과 꼭 일치하기 때문에, 관촉사 상이 광종대에 사용된 척도를 적용하여 조성하였음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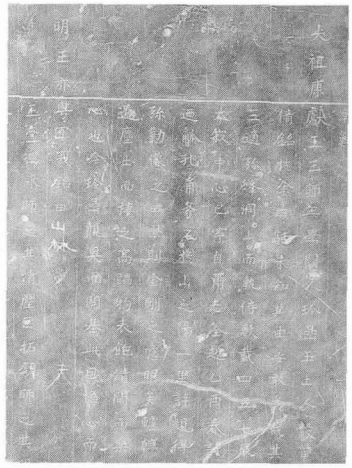
한편 고려 전반기 미륵상의 신체표현은 첫째 예배자를 압도하는 위압적인 얼굴표현과 더불어 장중하고 괴량적인 형태미를 보이는 미륵상, 둘째 인간적인 얼굴에, 불상의 높이만을 강조한 세장한 석주형의 형태미를 보여주는 미륵상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러한 양상은 고려 전기 석탑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불상과 석탑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

52 「彌勒大成佛經」, 이종익 · 무관 譯, 『미륵경전』(민족사, 1996), p.60, pp.85-86.

53 李宗峯,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혜안, 2001), p.77.





도 41 석조미륵불좌상,
1412년경,
높이 183.7cm,
보령 금강암

도 41-1 보령 금강암
영암비구창금강암비,
1412년,
87×74.2×4cm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 용화수인 미륵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용화인 미륵상은 도솔천에서 하생하여 화림원 용화수 아래에서 개최되는 용화삼회의 설법을 '용화'라는 꽃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앞선 시기의 미륵도상은 여래와 보살의 확연한 구분 속에 조형화되고 있지만, 고려시대 미륵상에서는 상 · 하생의 두 성격이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보살형으로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제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면류관형 보관 또는 탑형 보관을 쓰고 나타난다. 이는 곧 하나의 미륵상에 상생과 하생 신앙을 모두 담아내는 한편, 미륵하생은 전륜성왕의 출현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의 상에 모두 표현해 내고자 했던 것으로 인도나 중국의 미륵상에서 볼 수 없는 고려시대 미륵도상의 독창적인 특징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미륵상에 표현된 이중 천판을 가진 보관이다. 이 보관은 밀교경전에 설해진 내용과 인도 미륵보살상의 특징인 보관 불탑을 화엄사 사사자석탑 등에서 힌트를 얻어 고려적으로 재해석하여 前代未聞의 미륵도상을 창출하고 있는 점이다.

끝으로 이러한 용화수인 도상은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확실한 존상명과 절대연대를 가진 보령 금강암 미륵불상(1412년) 도41, 41-1,[54] 부여 무량사 미륵괘불탱(1627년), 관악산 마애미륵불상(1630년) 도42,[55]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불상(1666년경) 도43,[56] 청양 장곡사 미륵괘불탱(1673년) 등은 고려시대 도상과 상통하기 때문에 고려시대 꽃을 든

도 42 마애미륵불좌상, 1630년, 높이 355cm, 관악산 봉천동
도 43 마애미륵불좌상, 1666년경, 높이 450cm, 문경 봉암사

불상과 여래의 착의법을 한 보살상은 용화를 들고 있는 미륵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 주제어(key words) ___ 彌勒(Maitreya), 龍華(nāgapuṣna flower), 龍華手印(nāgapusna flower mudrā), 塔形寶冠(Stupa style crown), 上生信仰(The climb belief), 下生信仰(The appearance belief), 法相宗(Bub-sang school), 如來形(The form of Buddha), 菩薩形(The form of Bodhisattva), 着衣法(The arrangement mode)

▌투고일 2006년 10월 15일 | 심사일 2006년 10월 20일 | 심사완료일 2006년 11월 15일▐

54 「玲嵒比丘創金剛庵碑銘」에 의하면 "無學大師의 문인인 玲嵒 王上人이 질 좋은 청석을 찾아 미륵상을 조성했다"는 확실한 내력이 적혀 있다. 또한 이 불상은 태종과 궁주 권씨 일족, 그의 따님 옹주 이씨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왕실발원 불상이다. 洪思俊, 「金剛庵碑銘」, 『美術資料』 19(國立中央博物館, 1976. 12), pp.57-58; 문명대, 「조선시대 불교조각사론」, 『삼매와 평담미』(예경, 2003), pp.269-270.

55 "彌勒尊像 崇禎三年庚午四月日 大施主朴山會兩主"라고 음각되어 있다.

56 「환적당행장」에 의하면 幻寂 義天스님(1603-1690)이 66세(1663년)에 문경현 희양산 봉암사에 와서 겨울을 지냈는데, 일찍이 최치원이 遊賞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던 절 서쪽 백운대의 맑은 천변에 五丈가량 되는 바위 면에 미륵상을 새겼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불상은 1663년 환적 의천스님에 의해 미륵불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年六十六壬寅(1662)秋 來住慶尙道聞慶縣義陽山鳳岩寺過冬 明年癸卯(1663)春 寺之西里許白雲臺 乃崔孤雲所嘗遊賞處也 川明石白 怪石嵂嵂 川邊有削立石五丈許 顯刻彌勒像 因立記事碑文 文乃麗興閔判書所撰也…" 「幻寂堂大師行狀」, 『韓國佛教全書』 9권, p.158; "…寒水齊集中 多說白雲雙溪之勝 石面彌勒像 卽 幻寂義天禪師願.佛也 禪師平生住幻寂庵 日至西峯 瞻禮云 彌勒…"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上, p.833.

국문초록

고려 전반기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불상과 더불어 괴량적이고 힘이 넘치는 대형 미륵상들이 충청과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들 대형 불상들은 비록 여래형으로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머리에는 寶冠을 쓰고, 꽃을 잡고 있다.

고려시대 미륵을 주존으로 모시는 법상종의 융성과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천태종, 미륵신앙을 중시한 선종, 전통 재래의 미륵신앙 등 미륵신앙은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였는데, 이러한 신앙적 전통이 고려시대 미륵상 조형과 형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 초기의 미륵도상은 관음과 함께 석가모니불의 협시로 삼존을 구성하거나, 과거칠불과 병존, 또는 도솔천상에서 설법하고 있는 보살형으로 조형되어 주로 보관을 착용하지 않은 속발형의 머리스타일과 수병이 주요한 미륵도상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후 수병인 미륵상은 감소하고 그를 대신하여 용화인(nāgapuṣpa flower mudrā) 미륵도상이 나타나게 된다. 용화인 미륵상은 인도 굽타기부터 등장하여 팔라기에 정형화되고 있다. 초기의 용화인은 연꽃을 모방하는 단계이지만, 팔라기에는 소형의 꽃들이 다발을 이룬 가늘고 긴 잎이 표현된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중국의 초기 상에서는 수병인 미륵도상이 여전히 조성되고 있지만, 용화인의 시원으로 볼 수 있는 상들도 나타난다. 특히 인도의 용화인 미륵상 도상은 현장과 왕현책, 의정 등 구법승과 사신들의 왕래를 통해 중국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대와 송대에는 不空이 한역한 밀교경전을 토대로 한 보관에 탑을 두고, 손에는 水甁을 잡는 미륵도상과 함께 인도 팔라기의 미륵도상이 다소 변형된 團扇을 잡고 있는 미륵도상도 나타나고 있다.

용화라는 말은 미륵보살이 석가모니불 入滅 後 56억 7천만 년이 지나 도솔천에서 교화를 마치고 이 세상의 龍華樹 아래에서 하강한다는 말에서 유래하며, 즉 용화나무에서 피어난 꽃을 의미한다. 『彌勒大成佛經』(鳩摩羅什 譯, 402년)에는 "용화가지는 보배 龍처럼 백 가지 꽃을 토하고, 꽃잎 하나하나에는 칠보의 색을 띠며, 갖가지 다른 과일이 중생에 뜻에 따라 열린다"고 쓰여 있다. 특히 佛說大乘觀相曼奈羅淨濟惡趣經』에는 "만나라의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우선 자씨보살이 앉되, 황색의 몸에 불꽃이 치성하고 오른손으로 龍華樹 가지를 잡고, 왼손으로 軍持를 잡는다"고 쓰여 있어 용화수인 미륵도상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라고 생각된다.

고려시대 용화인은 전대의 조각전통과 함께 인도 팔라기에 정형화된 소형 잎들이 다발을 이루는 용화인 도상을 직 · 간접적으로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려시대 미륵도상의 특징으

로는 첫째, 탑을 연상케 하는 탑형보관 미륵상의 등장이다. 관촉사 상과 대조사 상에서 보이는 不空이 한역한 『八大菩薩曼荼羅經』과 太藏界八葉院의 미륵보살의 형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에서 힌트를 얻어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여 창출해 낸 도상으로 이해된다. 둘째, 着衣法이다. 보살상은 한결같이 여래의 착의법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살상에 여래의 착의와 함께 보관을 표현함으로써 王卽佛 사상에 입각한 전륜성왕의 이미지와 미륵의 상 · 하생 신앙을 모두 표현해 내고자 의도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자세이다. 고려시대 미륵상에서 유희좌 상과 더불어 생동감 넘치는 연화좌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솔천에서 하강하는 미륵보살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고안해 낸 표현방식으로 판단된다. 넷째, 신체표현이다. 즉 기념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관촉사 미륵보살상을 시작으로 5m가 넘는 대형 불상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미륵대성불경」 등 미륵경전에 설하고 있는 미륵의 상용을 충실히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괴량적 석주형태와 세장한 석주형태의 두 가지 신체표현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고려석탑에서도 공통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

Abstract

The Iconography of Maitreya Images Holding nāgapuṣna in the Goryeo Period

Son Youngmoon*

In the first half the Goryeo period, a number of colossal Maitreya statues were created in the Chungcheong and Gyeonggi provinces. These images are not distinguishable from Buddhas except for the crown and flowers held in a hand. During the Goryeo period, Maitreya was actively worshipped in distinctive form under the influence of diverse religious trends such as the Beopsangjong (Dharmalakṣana school) where the Maitreya was venerated as a central deity, the Cheontaejong (Tiantai school) where the *Lotus Sutra* was ardently read, and the Seonjong (Chan school) where the Maitreya faith was highly valued. This must have led to the creation of a large number of Maitreya image.

At the early stage in Indian Buddhist art, Maitreya appeared as an attendant figure in Śākyamuni Buddha triads, or with the seven Buddhas of the past, or as one who teaches in the Tuṣita Heaven. The topknot and water bottle were usual attributes in its iconography. After a while, Maitreya images with a nāgapuṣpa flower in hand started to appear instead of a water bottle. This new form appeared during the Gupta period in India and was standardized in the Pāla period. The shape of the flower is made in imitation of a real flower at the initial stage, and

* National Treasures Specialis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gradually changed to the form of a bunch of flowers with fine and long leaves attached.

In China, not only Maitreya images with holding water bottle in hand but also images holding presumably an incipient form of *nāgapuṣpa* is found at the early stage. The Indian iconography of Maitreya with nāgapuṣpa seems to have been transmitted through the intercourse with the travel of envoys and pilgrims such as Xuanzang, Wang Xiance, and Yijing. In the Liao and Song dynasties, the iconography of Maitreya appeared somewhat transformed on the basis of Maitreya images of Pāla period with a stupa in the crown and a water bottle in hand, which was influenced by the account in esoteric Buddhist scriptures translated into Chinese.

The *nāgapuṣpa* as an attribute for Maitreya is derived from the story that having descended from the Tuṣita Heaven and become enlightened, Maitreya will teach under the *nāgapuṣpa* tree. It stands for a blossomed flower from the *nāgapuṣpa* tree. According to *Mile dachengfo jing* (彌勒大成佛經), the *nāgapuṣpa* branch throws hundreds of flowers like a precious dragon, each leaf holds the color of seven treasures, and various fruits are born according to human beings' wish. *Foshuo dasheng guanxiang manchaluo jingzhiequ jing* (佛說大乘觀相曼奈羅淨濟惡趣經) speaks of Maitreya Bodhisattva seated at the eastern gate of Man nation with a sacrificial flame offered to one's yellow body and a *nāgapuṣpa* branch and a *Kaṃaṇḍlu* carried in hands. These accounts are presumed to be specific instructions regarding the iconography of Maitreya with *nāgapuṣpa*.

The *nāgapuṣpa* held by Maitreya images in the Goryeo period was adopted through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from the sculptural tradition of the previous era and the standardized iconography of Pāla period in India.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Maitreya in the Goryeo period, the crown in the form of a stupa should be first counted. This feature could be attributed to the form of Maitreya Bodhisattva from the Eight-fold Petal Cloister of the Garbhadhātu and the *Sutra of the Eight Bodhisattva Maṇḍala*. Maitreya in this form is seen in stone images at Gwanchoksa and Daejosa. The iconography seems to have been created with new inspiration from a three-story stone pagoda with four-lions at Hwaeomsa.

The second notable feature is the drapery. The drapery of Bodhisattva images consistently shows no difference with that of Buddhas. Therefore, it seems that both the upper/lower beliefs of Maitreya and the image of *cakravartin* are intentionally represented together.

The third feature is the posture. The relaxed posture and lotus pedestal appeared simultaneously for the image of Maitreya in the Goryeo period. This phenomenon is considered to

be aimed at dramatically portraying Maitreya Bodhisattva's descent from the Tuṣita Heaven.

The fourth feature is bodily form. Beginning with the image of Gwanchoksa, higher than 5 meters, large-size images were produced;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completion of Maitreya's canon as stated in the Maitreya Sutras. Two different styles, one like a massive pillar and the other like a slender pillar, emerged in the forms of the body, which is the common feature also found among stone pagodas of the Goryeo period.